

2001년 중국경제 : 저물가, 고성장 기조 유지

1. 대외여건 악화에도 불구하고 7.0% 목표성장 달성 무난할 듯

□ 2001년 세계경제가 커다란 어려움에 직면한 가운데 중국은 여전히 7.3%의 견실한 성장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.

- 올해 중국의 목표성장률 7.0%를 무난히 달성할 수 있음.
- 베이징 올림픽 유치, 상하이 APEC 개최, WTO 가입 등 대형 이슈로 중국은 세계의 이목을 받았음.
- 세계경제가 불안한 양상을 보인 가운데 중국은 내수 확대, 적극적 재정정책 및 효율적인 통화운용정책으로 견실한 성장기조를 유지함으로써 세계경제 안정에 일조함.

□ 2001년 중국경제의 거시적 운영의 주된 특징은 저물가, 고성장 기조 유지임.

- 중국의 고성장기조 유지는 침체 일로에 있는 세계경제와는 선명하게 대조됨.
-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은 1.3%로 지난해 3.8%에 비해 크게 떨어짐. 반면 중국은 3/4분기 성장률이 7.6%로 금년 전체로는 7.3%의 성장률이 예상되며, 이는 지난해의 8.0%에 비해 소폭 둔화된 것임.

□ 경제의 안정성장은 농·공업 성장에 반영

- 금년 3/4분기중 농업생산은 경지면적의 감소와 가뭄으로 인해 식량작물이 전년동기대비 85억 톤 감소함.
 - 다만, 주요 경제작물과 축산물은 우량 품종 위주의 경작과 축산으로 생산량이 소폭 증대되었음.
- 정부는 농산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장수급조절 유도 및 품종별·지역별 특화산업 위주의 농업정책을 적극 추진함.
 - 보리 : 황허 유역
 - 유채작물 : 장장 유역
 - 대두 : 동북지역
 - 면화 : 신장, 장장, 황허유역
- 올해 1~9월중 공업생산량은 1조 9,597억 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10.3%의 양호한 실적을 달성함.
- 전통산업의 구조조정도 꾸준히 진행됨. 시멘트, 철강, 석탄 등 5대산업의 소규모 노후설비 도태를 추진하고 있는 '五小 정책'으로 중점산업과 국유 중점기업의 영업환경이 크게 개선되었음.
 - 가장 실적이 부진한 석탄산업도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섰으며, 다른 모든 업종은 내수판매와 수출 모두 크게 증가함. 올해 석탄수출량은 8천만 톤으로 세계 2위의 수출대국으로 자리잡음.

□ 중국 IT산업 고성장 지속

- 세계 IT산업의 실적부진 및 감원바람에도 중국 IT산업은 여전히 높은 성장세를 유지해 세계 IT시장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.
 - 금년 7월 휴대폰 이용자 수는 1.2억 명으로 이미 미국을 넘

어 세계 1위 통신대국으로 부상하였으며, 인터넷 이용자수도 2,600만명으로 세계 평균 성장률을 훨씬 넘어섬.

- 아태지역의 정보산업기지는 현재 동경, 서울 등지에서 점차 베이징, 톈진, 상하이 및 珠江삼각지 지역으로 확산되는 추세임.

□ 광둥, 저장성 등 일부 연해지역과 서부지역의 경제성장세가 두드러져

- 중국의 지역별 성장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임. 특히 개혁개방의 선도지역인 연해지역의 고성장은 중국의 안정성장을 유도함. 광둥성의 금년 3/4분기 성장은 9.6%이며, 올해 9.5%의 높은 성장이 예상됨.
- 저장성의 경우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있는바 금년 8월까지의 수출증가율은 21.5%로 중국전체의 13.5%를 크게 넘어서 중국 내에서 수출증가율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자리잡음.
- 서부대개발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西氣東輸와 西電東送 정책이 무리없이 진행되고 있으며, 경작지 환원을 위한 식목작업도 커다란 진전을 보고 있음.
- 서부지역의 투자증가율과 경제성장률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. 금년 3/4분기중 서부지역 12개 성의 GDP는 1조 2,079억 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8.7%를 기록하였는 바, 이는 중국 평균보다 1.1%포인트 높은 수치임.

□ 중부지역은 농업부문 위주로 개선 추세

- 중부지역 농업 大省의 구조조정이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음. 우량 품질의 밀 생산량이 크게 증가하였고, 금년 식량가격 상승으로 농민수입도 크게 증가함. 허난성 농촌 현금수입 증가율은 9.1%의 높은 수준을 기록함.
- 기타 면화, 담배 등 경제작물의 가격 상승으로 인해 중국의 주요 농업생산지역인 중부지역의 농촌 현금수입 증가율은 중국 전체에 비해 0.6%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남.

□ 경제의 안정성장으로 기업의 내외 경영여건이 크게 개선

- 전국 공업기업의 3/4분기 이윤총액은 3,260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대비 12.6% 증가하였음. 이에 따라 재정수입은 2,000억 위안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.
- 물가 역시 안정기조를 유지하고 있음. 1~10월중 소비자물가지수는 0.9%로 중국정부는 더 이상 통화량 증대가 거시경제조절의 주된 정책으로 삼고 있지 않음.
- 지난 10월 18일 외환보유액은 2,000억 달러를 넘어서 중국경제의 신뢰도를 높임. 높은 수준의 외환보유액은 대외개방폭 확대 및 환율 안정을 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함.

2. 투자 확대와 민간소비 촉진 위주의 정책 추진

□ 수출증가율 점진적으로 둔화 추세

- 광저우 무역박람회는 중국 수출의 바로미터 역할을 하고 있음. 광저우 무역박람회는 매년 두 차례 열리고 있는 바, 금년 3월에 비해 10월 박람회에 참여한 바이어가 10% 감소하였으며, 특히 미국과 중동지역의 바이어가 각각 25%, 50% 급감함. 이에 따라 전체적으로 수출계약액도 15.4% 감소하였고, 미국과 중동지역은 각각 22%, 55% 감소함. 무엇보다도 9·11 테러사태의 영향이 컸음을 알 수 있음.
- 올해 중국의 수출증가율을 보면 1/4분기에는 14.7%의 높은 수준을 보였으나 계속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7월과 8월에는 각각 6.6%, 0.9%로 떨어짐. 올해 중국 수출증가율은 4% 내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.
 - 2000년 중국의 수출증가율이 22.7%에 달한 점을 감안한다면 수출 둔화 폭이 상당히 큼을 알 수 있음.
- 수출증가율 둔화의 주된 이유는 미국경기의 침체에 있음. 중국의 대미 수출 비중은 약 25%로 미국경기의 회복 여부가 중국 수출 증감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음.
- 또한 중국 경제의 대외의존도가 40%에 달하고 있는 만큼, 수출 감소는 중국경제 성장의 둔화, 실업 증대, 세수감소 등으로 이어질 수 있음. 현재 중국은 다양한 수출확대책을 시행하고 있어 올해 4% 내외의 수출증가율은 무난할 것으로 기대됨.

□ 내수 진작을 위한 투자 확대 추진

- 수출둔화가 계속되는 가운데 중국의 견실한 성장기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수확대정책이 중요함. 금년 3/4분기중 고정자산 투자 증가율은 12%로 전년동기대비 3%포인트 높음. 이

로 인해 GDP 성장률이 0.5% 포인트 증가 가능. 고정자산투자 가운데 부동산 투자와 서부지역 투자가 각각 31.2%, 22.8%로 높게 나타남.

- 금년 1~10월 중 외국인투자는 372.53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8.63%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함. 특히 최근 중국투자의 특징은 모토롤라, 코카콜라 등 다국적기업이 중국을 생산거점으로 삼는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고 있다는 것임.
- 중국의 고도성장 지속, 정치 안정, WTO 가입, 투자관련 법률 개정 등의 요소로 중국의 외국인투자는 계속 증대될 것으로 전망됨.

□ 민간소비 꾸준히 증대

- 현재 중국의 생활수준은 이미 샤오강(小康)상태로 접어든 것으로 평가됨.
- 자동차, 부동산 등 10만 위안 이상의 고가 소비가 확산되고 있음. 지난 10개월간 자동차 판매량은 195.72만대로 전년동기대비 16.7% 증가하였으며, 자동차 가격 하락으로 소비증가 추세는 지속될 전망이다.
- 또한 주택제도의 개혁과 금융기관의 부동산 대출 확대로 주택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거래도 활발함. 이외 관광, 교육 관련 지출비용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.

□ 1998년 이래 중국은 4년 연속 내수 진작책을 안정적 경제성장의 기반으로 삼았으며,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음. 2000년 중국은 경제성장 둔화국면에서 반전되어 8.0%의 높은 성장을 거두

- 1998년 이래 중국은 4년 연속 내수 진작책을 안정적 경제성장의 기반으로 삼았으며,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음. 2000년 중국은 경제성장 둔화국면에서 반전되어 8.0%의 높은 성장을 거두

었음. 올해에도 이러한 내수촉진을 통한 경제성장정책은 계속 됨.

- 올해 2,000억 위안 규모의 국채를 발행하였는 바 이는 지난 3년간 평균 발행규모 1,200억 위안을 훨씬 넘어서는 규모이며, 이중 500억 위안은 서부대개발에 사용됨.
- 올해 중국의 화폐정책은 내수 촉진을 관철시키는데 초점을 맞춤. 다양한 통화정책을 적절히 배합하여 물가안정 하에 내수와 투자를 확대하도록 유도함.

— — — — —

책에 있으며,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음.

- 금년 4월과 10월 두차례에 걸쳐, 공장근로자 임금 및 퇴직금을 상승함.
- 재정의 사회보장지출 비중을 크게 확대하였으며, 퇴직자의 양로금 및 국유기업 사장(下崗)인원에 대한 기본급 인상을 단행함.
- 농민 수입 증대를 위해 농업생산 효율성 제고를 위한 경영 노하우 제공, 농업 선도기업 발전 유도, 농촌부문의 신시장 개척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함. 또한 재해농민에게는 정부보조금을 확대함으로써 농민의 안정적 생활이 가능토록 함.
- 관광기초시설 투자 확대, 부동산 대출 확대, 자동차 소비세 인하, 이동전화 초기가입비 면제 등의 소비확대정책을 추진함.
- 수출확대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함. 신시장을 개척하고, 수출 증치세 환급 확대 등의 수출 장려정책을 취함. 또한 전

기 전자 등 고부가제품 위주로의 수출구조 전환을 통해 수출 경쟁력을 강화함.

- 대외무역체제와 기업부문의 지속적인 개혁과 생산기업의 수출입 거래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의 수출생산성을 높임. 수출 증치세 부정 환급 및 밀수에 대한 엄격한 단속으로 무역 환경을 개선함.

□ 적극 재정을 통한 투자 확대와 민간소비 증대로 경제 안정성장 지속 전망

- 올해 4/4분기에도 중국경제를 둘러싼 제반 국제경제적 환경은 여전히 불투명함. 이러한 국제경제 환경속에서 WTO 가입은 중국에게 새로운 기회이자 위기이기도 함.
- 다만, 중국은 스스로 엄청난 내수시장을 지니고 있고 풍부한 인력자원과 사회안정이 유지되고 있어 내수확대를 위한 제반 정책이 유지되기만 하면 경제 안정성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임.

문의 : 개도국신용평가실 차장 김주영 ☎ 3779-6647, jykim@koreaexim.go.kr
대리 전선준 ☎ 3779-6650, jsjun@koreaexim.go.kr